



#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2020년 9월 21일 Vol. 3 No. 29

ISSN 2635-5981

##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 및 시사점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 차 례

1. 코로나19 동향
2. 경제적 영향
3. 주요 방역조치 및 경과
4.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뉴질랜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봉쇄조치 실시로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효과적인 방역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뉴질랜드 경제는 3~4월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로 내수 약화가 이어져 1/4~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뉴질랜드는 경제성장률이 1/4분기 -1.6%(전기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12.2%로 나타남.
  - 엄격한 뉴질랜드의 방역기조로 코로나19 상황은 안정화되었으나, 관광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9월 21일 기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인구 백만 명당)는 각각 363명, 5명(확진자 수 기준)을 기록함.
  -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1,400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3월 말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확진자 수가 감소함.
- ▶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배경으로는 △선제적 방역조치 △적극적인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와 정부의 리더십 △고립된 지리적 특성이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상황 속에도 2월부터 신속하게 해외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4일 만에 경보 시스템을 2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격상하는 등 강력한 국내 봉쇄조치를 실시함.
  - 뉴질랜드 정부는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접촉자 추적·격리 조치를 시행함.
  - 정부는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리더십에 국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음.
  - 뉴질랜드의 섬나라라는 지리적 고립성이 코로나19 방역에 유리하게 작용함.
- ▶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협조가 봉쇄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뉴질랜드는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코로나19 동향

■ 9월 21일 기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인구 백만 명당)는 각각 363명, 5명으로, 세계 165위(확진자 수 기준)를 기록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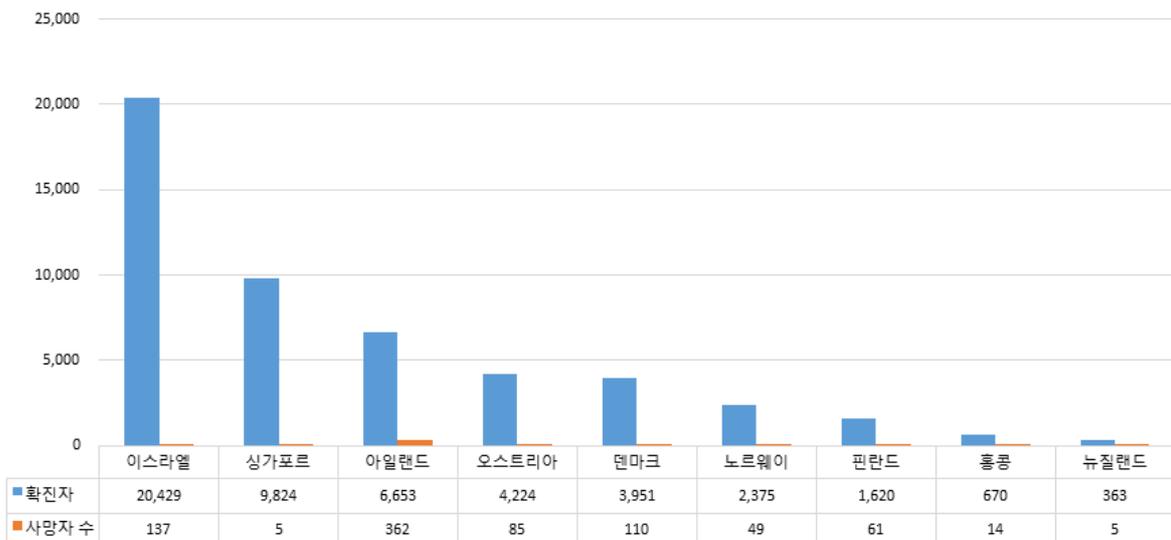
- 인구 500만 명의 뉴질랜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섬나라인 아일랜드의 확진자 규모를 비교하면, 아일랜드의 9월 21일 기준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6,653명, 362명으로 세계에서 55번째로 많음.
- 뉴질랜드의 코로나19 감염은 해외유입을 통해 주로 발생함.
  - 2020년 9월 20일 기준 뉴질랜드는 해외유입과 관련된 확진자 비중이 전체의 64%로 지역 감염 관련(3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1,400여 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3월 말 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로 인해 확진자 수가 감소함.

- 지난 6월 8일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 1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후 한 자릿수의 확진자 수를 기록해오다가, 8월 12일 다시 1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추세임.

그림 1. 인구 백만 명당 주요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단위: 명)



주: 1) 2020년 9월 2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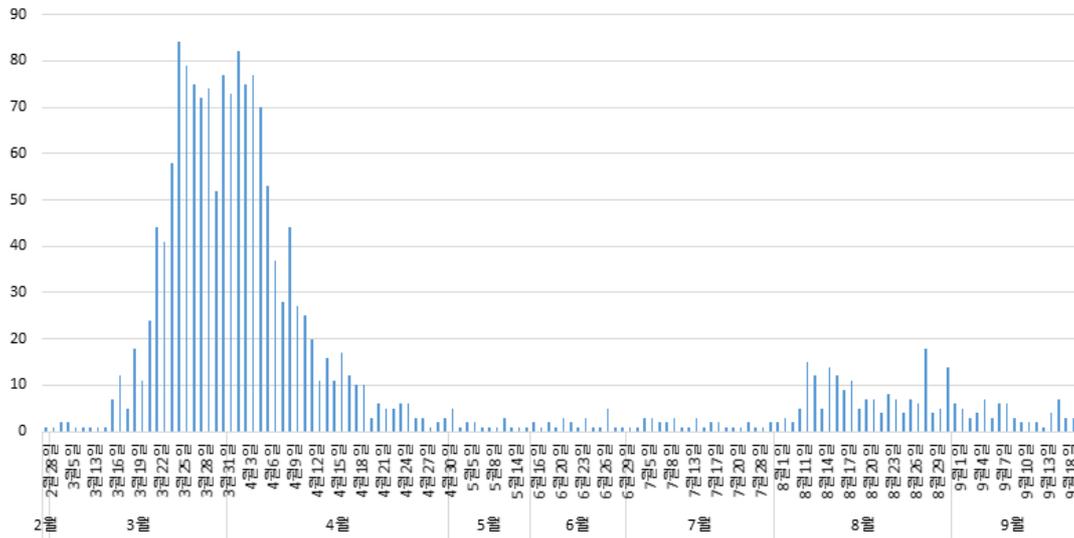
2) 인구 1,000만 명 이하 기준, 뉴질랜드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와 비교.

자료: Worldmeters, <http://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검색일: 2020. 9. 21).

1) 9월 21일 기준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1,815명, 25명임.

그림 2. 뉴질랜드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2020년 2월 28일-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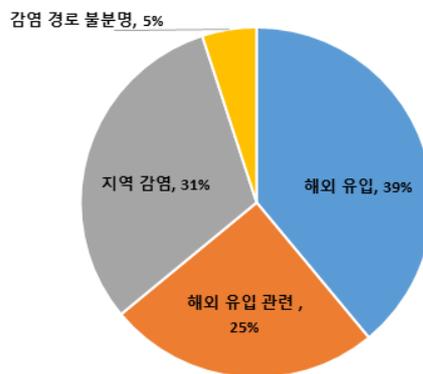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뉴질랜드 보건부(검색일: 2020. 9. 21).

그림 3. 뉴질랜드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

(단위: %)



주: 2020년 9월 20일 09:00 기준임.  
자료: 뉴질랜드 보건부(검색일: 2020. 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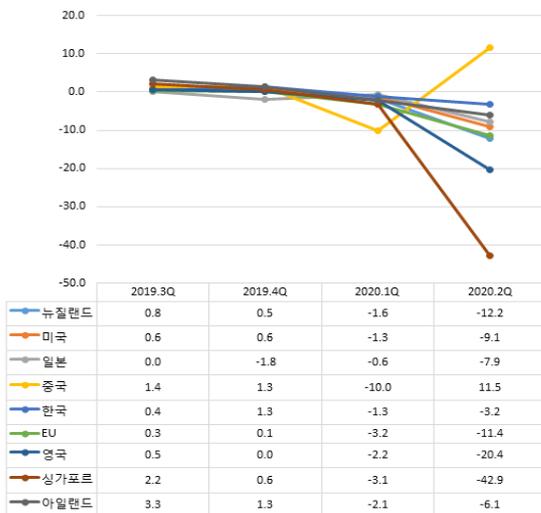
## 2. 경제적 영향

- 뉴질랜드 경제는 3~4월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로 내수 악화가 이어져 1/4~2/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 1/4분기 -1.6%(전기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12.2%로 나타남.
- 비교적 느슨한 봉쇄조치를 취한 다른 국가에 비해 뉴질랜드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의 하락폭이 큼.

- 2/4분기 소매업 및 제조업 판매실적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2%, 11.9% 감소함.<sup>2)</sup>
- 뉴질랜드 GDP의 18%(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7월 해외 입국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98.5%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음.
- 관광업과 연관된 숙박·음식서비스업의 2/4분기 판매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41.2%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해외 방문객 및 유학생의 지출액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sup>3)</sup>

그림 4. 주요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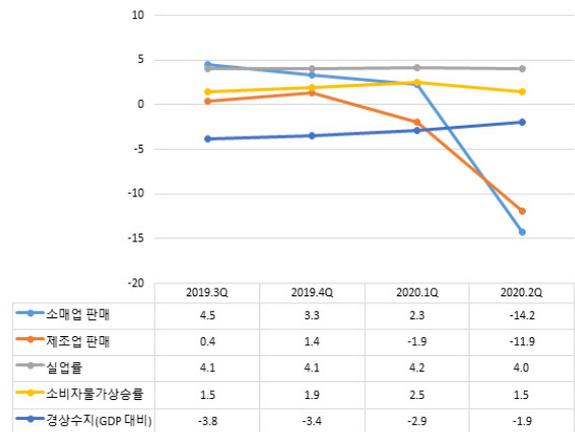


주: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OECD Data;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0. 9. 17).

그림 5. 뉴질랜드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검색일: 2020. 9. 17); 뉴질랜드 통계청(검색일: 2020. 9. 17).

■ 한편 농림수산업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의 산업구조가 코로나19 사태에 일부 완충작용을 함.

-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인 낙농품·육류 중심의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경 봉쇄조치에 따른 관광 수출액 감소세를 일부 상쇄함.
- 2019년 관광업은 전체 뉴질랜드 수출액의 20.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2020년 2/4분기 관광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50%(약 18억 뉴질랜드달러) 감소하였으나,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인 버터·치즈, 육류, 과일 등의 수출 총액은 8%(약 6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 증가함.<sup>4)</sup>
- 2/4분기 실업률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4%를 기록하였으며,<sup>5)</sup> 1/4분기 4.2%보다 소폭 개선됨.
- 낮은 실업률은 상반기 중 시행된 정부의 급여보조금(COVID-19 Income Relief Payment) 지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8월 29일 기준 약 2만 4,800명이 급여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유가 및 교통비 하락으로 2/4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1.5%를 기록하여 정부 목표치(1~3%) 범위 내에 있음.

2) 뉴질랜드 재무부(2020), "Weekly Economic Update - 28 August 2020."

3)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stats.govt.nz/>(검색일: 2020. 9. 17).

4)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New Zealand Now: Tourism at June 2020," <https://www.stats.govt.nz/reports/new-zealand-now-tourism-at-june-2020>(검색일: 2020. 9. 8).

5) 뉴질랜드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stats.govt.nz/>(검색일: 2020. 9. 3).

■ 뉴질랜드 정부는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3월 121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5월에는 500억 뉴질랜드달러(GDP의 16.6%)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 기금(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Fund)'을 발표하며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확대함.
- 500억 뉴질랜드달러 중 200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투입될 예정임.

### 3. 주요 방역조치 및 경과

■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퇴치전략(Elimination Strategy)'을 내세운 뉴질랜드 정부는 6월 8일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 발생 초기 뉴질랜드 정부는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y)'에서 3월 23일 '퇴치전략(Elimination Strategy)'으로 전환하면서<sup>6)</sup>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함.
- 뉴질랜드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배경으로는 △선제적 방역조치 △적극적인 진단 검사 및 접촉자 추적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와 정부의 리더십 △고립된 지리적 특성이 있음.

■ [선제적 방역조치] 뉴질랜드 정부는 2월부터 신속하게 해외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외출제한 및 학교폐쇄 등 강력한 국내 봉쇄조치를 실시함.

- 2월 2일 중국 이외 국가(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발생하자, 뉴질랜드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없는 상황 속에도 2월 3일부터 중국 입국 및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 동안 격리조치함.
- 2월 2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감염지로 추정되는 이란을 시작으로 한국, 이탈리아 등 입국 금지 대상국을 확대해나감.
- 3월 20일부터는 시민권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국경 봉쇄조치를 실시함.
- 뉴질랜드 정부는 3월 21일부터 두 자릿수의 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3월 25일 경보 단계를 2단계에서 최고인 4단계로 격상하였으며,<sup>7)</sup> 이후 그에 따른 봉쇄조치를 약 한 달간 지속함.
  - 4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야 하며, 학교시설이 폐쇄되고 필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영업이 중지됨(표 1 참고).
- 강력한 봉쇄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의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마지막 환자가 완치되면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6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며 국경 봉쇄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였음.

6) Michael G Baker, Amanda Kvalsvig, and Ayesha J Verrall(2020), "New Zealand's COVID-19 elimination strategy,"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7) Unite against COVID-19 홈페이지, "New Zealand COVID-10 Alert Levels," <https://covid19.govt.nz/>(검색일: 2020. 8. 28).

- 한편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확진자 수가 5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다가 8월 12일부터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경보가 재격상됨.

표 1. 뉴질랜드의 코로나19 경보 단계

단계	위험 평가	주요 조치 내용
4단계-퇴치 (광범위한 지역감염 확산으로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감염 확산이 빠르고 지속적인. - 광범위하게 발생	- 집에 머물기 - 교육시설 폐쇄 - 필수 서비스 업종(슈퍼마켓, 약국, 병원 등) 및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 폐쇄 - 정부의 필수 물품 및 시설물 직접 관리 - 모든 여행 제한 - 의료기관 우선순위 전면 재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9월 1일부터 추가)
3단계-제한 (지역감염 확산으로 통제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은 경우)	- 지역사회 전파 진행 - 다발적 집단 감염 발생	- 지역 혹은 집단 감염 발생지 내 이동 제한 - 감염 발생 교육기관 폐쇄 - 대규모 모임 취소, 공공장소 폐쇄 - 대체 근무방식 실시, 비필수적 업종의 영업 중단 - 1차 보건기관 대면 진찰 금지 - 급하지 않은 병원 치료나 시술 연기, 의료기관 인력 재분배 - 마스크 착용 의무(9월 1일부터 추가)
2단계-축소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	-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 증가 - 집단 감염 증가 - 단발적 집단 감염	- 최대한 국경 통제 - 대규모 모임 제한 - 대중교통 이용 시 거리두기 - 필수 여행 외 여행 제한 - 가능한 한 대체적 근무방식 도입 -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 집에 머물기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9월 1일부터 추가)
1단계-준비 (코로나19 확산 대비)	- 코로나19의 해외유입 가능성 증가 - 산발적인 해외유입 사례 발생 - 해외유입 사례와 관련된 단발적 감염 발생	- 해외입국 통제 -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 엄격한 자가격리 및 검역 - 강도 높은 코로나19 검사 -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자료: Unite against COVID-19 홈페이지, "New Zealand COVID-10 Alert Levels," <https://covid19.govt.nz/>(검색일: 2020. 9. 1).

■ [적극적인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 뉴질랜드 정부는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접촉자 추적·격리 조치를 실시함.

- 초기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역량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나,<sup>8)</sup> 국내 봉쇄 조치 시행 기간 중 관련 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재 하루 2만 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해짐.<sup>9)</sup>
  - 광범위한 진단검사 실시로 인해 2020년 1월 22일~8월 31일 약 67만 명이 검사를 받아 1,000명당 135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양성률은 0.2%를 기록함.<sup>10)</sup>
  - 진단 검사비는 무료이며,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유료임.

8) Michael G. Baker, Nick Wilson, and Andrew Anglemyer(2020), "Successful Elimination of COVID-19 Transmission in New Zealand,"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83, No. 8, p. 56.

9) Ministry of Health of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current-situation/covid-19-current-cases>(검색일: 2020. 8. 28).

10) Ministry of Health of New Zealand 홈페이지,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current-situation/covid-19-current-cases>(검색일: 2020. 8. 28).

- 국가밀접접촉서비스(National Close Contact Service)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접촉자에게 우선 전화 연락이 이루어지고 밀접 접촉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와 격리조치가 실시되었으나, 5월부터는 공식 추적 애플리케이션인 NZ COVID Tracer를 운영하며 추적역량을 강화함.
-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의 의무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됨.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제정된 「코로나19 공중보건대응법(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는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4,000뉴질랜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표 2. 뉴질랜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

일자	주요 내용
2월 3일	중국 입국 및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2월 28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3월 20일	시민권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 금지
3월 21일	경보 2단계 발령
3월 23일	경보 3단계 발령
3월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 84명 발생,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
3월 29일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4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돌파(총 1,039명)
4월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 발생으로 안정세, 경보 4단계 → 3단계로 완화
5월 13일	경보 3단계 → 2단계로 완화
6월 5일	14일 연속 신규 확진자 미발생
6월 8일	전 세계 최초 코로나19 종식 선언, 경보 2단계 → 1단계로 완화
6월 16일	12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 발생
8월 11일	102일 만에 지역감염 발생
8월 12일	신규 확진자 15명 발생, 오클랜드 지역 3단계 경보로 격상(그 외 지역은 2단계)
8월 31일	모든 지역 2단계로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자료: "COVID-19 timeline: A look back at how NZ responded to the crisis, eliminating all active cases"(2020. 6. 8), 1 News.,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covid-19-timeline-look-back-nz-responded-crisis-eliminating-all-active-cases>(검색일: 2020. 8. 31); "Coronavirus in New Zealand: A Timeline"(2020. 8. 31), Mail Online, <https://www.dailymail.co.uk/news/fb-8679925/CORONAVIRUS-NEW-ZEALAND-TIMELINE.html>(검색일: 2020. 8. 31).

-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도와 정부의 리더십] 뉴질랜드의 강력한 봉쇄조치와 방역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과학적 정보에 기반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얻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저신다 아던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협력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소통 방식으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큰 저항 없이 봉쇄조치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sup>11)</sup>

-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수립 과정 중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총리의 대연설에는 공중보건 의학전문가인 보건부의 애슐리 블룸필드(Ashley Bloomfield) 국장이 동석하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과학적 정보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줌.
- 코로나19 방역 초기부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하여 단결하자(Unite Against COVID-19)”, “우리 500만 명은 하나의 팀이다(We are a team of 5million)” 등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며 국민 협력을 강조해옴.
-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뉴질랜드 국민의 88%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결정이 옳다’고 응답하며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임.
- G7 국가의 대정부 신뢰도는 평균 59%를 기록함.<sup>12)</sup>
- 그동안 진정성, 신뢰, 공공재 우선 등을 강조해온 총리의 가치관이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잘 부합한 것으로도 평가됨.<sup>13)</sup>
- 2017년 전 세계 최연소(당시 37세) 여성으로 국가 수장이 된 저신다 아던 총리는 2019년 3월 15일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도 화합과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 큰 지지를 얻은 바 있음.

■ [고립된 지리적 특성] 뉴질랜드의 섬나라라는 지리적 고립성이 코로나19 방역에 유리하게 작용함.

- 뉴질랜드는 호주 동남부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주변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다 쉽게 국경을 차단할 수 있었음.
- 뉴질랜드 정부의 코로나19 퇴치전략의 주요 특징은 입국 단계부터 통제하는 것임.<sup>14)</sup>
- 뉴질랜드의 고립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 입국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첫 확진자도 2월 28일에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기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됨.<sup>15)</sup>
- 아울러 500만 명의 적은 인구와 낮은 인구밀도(2018년: km<sup>2</sup>당 18명)<sup>16)</sup>로 인해 사람간 접촉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방역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

11) “‘A Team of Five Million.’ How New Zealand Beat Coronavirus”(2020. 8. 3), *Direct Relief*, <https://www.directrelief.org/2020/08/a-team-of-5-million-how-new-zealand-beat-coronavirus/>(검색일: 2020. 8. 25).

12) “Poll: 88% of Kiwis trust Government’s coronavirus response, vastly higher than other nations”(2020. 4. 8), *1 news*, <https://www.tvnz.co.nz/one-news/new-zealand/poll-88-kiwis-trust-governments-coronavirus-response-vastly-higher-than-other-nations>(검색일: 2020. 8. 28).

13) “Jacinda Ardern Helped New Zealand Beat Coronavirus. Next Up: Getting Re-Elected”(2020. 6. 12), *Time*, <https://time.com/5852567/new-zealand-coronavirus-jacinda-ardern-election/>(검색일: 2020. 8. 31).

14) “Why New Zealand’s Coronavirus Elimination Strategy is Unlikely to Work in Most Other Places”(2020. 4. 24), *Time*, <https://time.com/5824042/new-zealand-coronavirus-elimination/>(검색일: 2020. 8. 31).

15) “Why New Zealand’s Coronavirus Elimination Strategy is Unlikely to Work in Most Other Places”(2020. 4. 24), *Time*, <https://time.com/5824042/new-zealand-coronavirus-elimination/>(검색일: 2020. 8. 31).

16)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529명임.

## 4. 평가 및 시사점

■ 뉴질랜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봉쇄조치 실시로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방역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산 초기 강력한 ‘퇴치전략’ 하에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공중보건대응법(COVID-19 Public Health Response Act 2020)」을 제정하였으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4일 만에 경보 시스템을 2단계에서 최고 4단계까지 격상하며 신속하면서 유연한 방역체계를 운영함.
- 아울러 단기간 내에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함.
- 3~4월에 시행된 봉쇄조치에 이어, 8월 12일 15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후 경보단계가 1단계에서 2, 3단계로 재격상되어 한 달간 유지되면서 하반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OECD는 뉴질랜드의 높은 관광업 의존도, 민간소비 및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1차 코로나19 확산에서 그칠 경우 2020년 경제성장률이 -8.9%, 2차 확산이 유행할 경우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sup>17)</sup>
  - ADB는 전 세계 국경봉쇄에 따른 관광, 숙박, 소매업 등의 경기 부진으로 2020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을 -5.9%로 내다봄.<sup>18)</sup>
- 뉴질랜드 재무부는 2022년 1월에야 국경봉쇄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관광업의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sup>19)</sup>

■ 뉴질랜드의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효과를 얻은 방역조치를 그대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방역조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음.

- 강력한 봉쇄조치에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국가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sup>20)</sup>
-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접촉자 추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과 뒤늦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취약점으로 꼽히기도 함.<sup>21)</sup>

17) OECD(2020. 6), “OECD Economic Outlook.” 뉴질랜드는 9월 발표된 「OECD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제외됨.

18) ADB(2020. 9),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Update.”

19) “New Zealand backs lockdown strategy despite record contraction”(2020. 9. 17),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ab85dadf-e730-4e3d-89a0-05f4cc713f3c>(검색일: 2020. 9. 18).

20) “Why New Zealand’s Coronavirus Elimination Strategy is Unlikely to Work in Most Other Places”(2020. 4. 24), *Time*, <https://time.com/5824042/new-zealand-coronavirus-elimination>(검색일: 2020. 8. 31).

21) “6 months after New Zealand’s first COVID-19 case, it’s time for a more strategic approach”(2020. 8. 26),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6-months-after-new-zealands-first-covid-19-case-its-time-for-a-more-strategic-approach-144936>(검색일: 2020. 9. 3).

■ 국민의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협조가 강력한 봉쇄조치와 시너지 효과를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뉴질랜드 정부는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협조를 호소하며 이해하기 쉽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리더십을 발휘함.
- 이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이 강력한 봉쇄조치에 큰 저항 없이 따랐다는 것이 다른 국가의 봉쇄조치와 다른 점임.
-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국민의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고, 일관되면서도 분명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와의 전쟁(War on COVID-19)’을 내세운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항하여 단결하자(Unite Against COVID-19)”, “우리 500만 명은 하나의 팀이다(We are a team of 5million)”라는 단결과 화합의 메시지를 강조해옴.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뉴질랜드는 방역 모범국으로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를 함께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만큼, 양국은 역내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음.
- 지난 7월 양국은 백신 개발 및 생산, 공정한 백신 공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주도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팬데믹 대응 국제표준화를 전담할 조직인 작업반(Working Group)이 신설됨에 따라<sup>22)</sup> 우리나라는 ‘K-방역모델’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국제공조를 강조해나갈 수 있음.
- 신설된 작업반은 ISO의 신규작업표준안(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된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및 도보 이동형(Walk-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게 됨. **KIEP**

22) 산업통상자원부(2020. 9. 9), 「우리 주도로 ISO 감염병 팬데믹 대응 작업반(WG) 신설」,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3290](http://www.motie.go.kr/motie/n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3290)(검색일: 2020. 9. 10).